



2006 독일 월드컵이 코앞에 다가왔다. 23명의 태극전사들은 이미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 머물며 현지 적응훈련을 하고 있다. 2002년 '4강 신화' 재현을 위해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12번째 태극전사'들도 움직임이 바빠졌다. 독일월드컵 국가대표팀을 지원·응원하는 광주·전남 출신 '12번째 태극전사'들의 이야기를 모아봤다.

1 김현철 대표팀 주치의

오는 13일 2006독일월드컵 토고와의 첫 경기를 앞두고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맹훈련 중인 아드보카트호에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광주 출신으로 대표팀 주치의의 맡고 있는 김현철(44) 박사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지난달 31일 5:5 미니게임을 지켜보던 그는 박지성 선수가 이영표 선수와 볼을 다루다 쓰러져 발목을 감싸쥐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김 박사는 박지성에게 급하게 달려가 얼음 주머니와 '쿨러'(cooler·상처 부위를 시원하게 해주는 냉방기)를 들이대고, 부상의 정도를 살폈다.

다행히 발목을 약간 접지른 수준의 경미한 부상이었다. 이 정도면 2일 새벽 열릴 노르웨이와의 평가전에 뛠 수 있겠다 싶어 "휴~"하고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즉부 정형외과 전문의인 김 박사가 축구 대표팀의 주치의의 맡은 것은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다.

그는 지난 1월 15일 '아드보카트호'의 해외전지훈련에 합류하기 위해 고심 끝에 관동대 교수직을 내내렸다. "단지 축구가 좋고 재미있어서" 생업을 훌쩍 던진 것은 물론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2년에도 월드컵을 앞두고 조선태 의대 조교수로 있다가 '히딩크 호'에 합류하기 위해 잠시 직장을 포기했다. '4강신화'의 조연 역할을 한 뒤 관동대로 옮겼다가 4년 만

황금발 전담 '국가대표 전문의'

에 '축구 사랑방'이 도졌고, '역사는 또다시 반복됐다.' 광주 출신인 김 박사는 서석초등학교를 졸업한 뒤 서울에서 중·고교를 마치고, 지난 1981년 조선대 의대에서 입학했다. 축구를 너무 좋아해 중학교 때는 축구부에 들어가기도 했다. 결국 그는 조선대 병원에서 레지던트 과정을 이수하면서 스포츠 의학을 집중적으로 파고든다.

축구사랑 때문에 남들 같으면 '평생 직장'이라며 불붙고 있을 교수직을 두 번씩이나 버리는 과정에서 가족이 가장 큰 버

'축구가 좋아서' 교수직 두번 내던져
선수들 아픈 곳 귀신처럼 짚어내
"큰 부상없이 무사히 경기 마쳤으면..."

림목이 됐다. 아내와 두 아들은 싫은 소리 한 번 하지 않고 묵묵히 따라다녔다고 한다. 전남대 의대 신경정신과 교수를 지낸 부친 재권(75)씨도 "하고 싶은 일 하라"며 격려했다.

하지만 그에게도 말 못할 고민이 있다. 현장에 있으면서도 맘 놓고 게임을 보고 즐기기 못하는 것.

"공이 다른 선수에게 넘어가더라도 5초 정도 더 우리 선수를 지켜봅시다"

선수들을 지켜보는 그의 눈은 매섭지만 하다. 부상을 치료하는 것보다도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 틈만



광주 출신으로 축구대표팀 주치의의 맡고 있는 김현철(오른쪽 모자 쓴 이) 박사가 스코틀랜드 글래스고 머레이파크 경기장에서 훈련 중 넘어진 이윤용 선수를 상담하고 있다.

있으면 선수들과 대화를 하며, '아픈 곳'을 귀신처럼 짚어낸다.

이번 월드컵에서 그의 목표는 선수들이 큰 부상 없이 무사히 경기를 마치는 것이다. 월드컵 이후에는 학교로 돌아가지 않을 생각이다. 대신 본격적인 스포츠 메디컬 재활센터를 만들어 선수들이 전문적인 수술과 재활을 한 곳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스톱 스포츠 메디컬센터'를 만들 계획이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Weather forecast for June 1st (6월 1일) across various regions including Seoul, Gwangju, and Jeju. Includes a map of Korea and a table of high/low temperatures.

유치원에 '할머니 도우미' 배치

광주시교육청, 오늘부터 시범 운영

종일제를 운영하는 광주시내 유치원에 육아 경험이 풍부한 50~60대 여성 도우미가 배치돼 아이들을 돌보

다. 광주시교육청은 ▲교령화사회화에 따른 유휴 여성 인력의 사회참여 기회 제공 ▲일하는 여성의 사회 활동 지원을 통한 저출산 경향 완화를 위해 올 연말까지 관내 일부 유치원에 '할머니 자원봉사자'를 배치,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범 운영 대상은 종일제를 운영하

는 광주시내 유치원 30곳이다. '할머니 자원봉사자'는 유치원에서 급·간식 준비, 낮잠 재우기, 등·하교 지도, 책 읽어주기 등 교육활동을 보

조하게 된다. 하루 4시간 기준으로 1일 활동비로 1만5천원을 지급받으며, 근무일과 활동내용은 각 유치원에 결정하게 된다.

시교육청은 시범운영 결과가 좋으면 이를 내년부터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오늘 수능 모의평가 실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11월16일 치러지는 2007학년도 대학수능능력 시험에 대비한 모의평가를 1일 실시

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시험의 성격, 출제 방향, 출제 영역 등을 2007학년도 수능과 같게 출제해 수능을 성공적으로 시험하기 위한 준비시험이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번 모의평가의 출제 및 채점 과정에서 개선점을 찾고 채점 결과와 문항분석 결과를 토대로 2007학년도 수능 출제 및 난이도 조정에 반영한다.

시험 영역은 분수능과 마찬가지로 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사회/과학

/직업탐구, 제2외국어/한문이다. 응시자 수는 언어 61만3천10명, 수리가 17만3천99명, 수리나 43만4천873명, 영어 61만2천666명, 사회탐구 32만8천389명, 과학탐구 20만16천605명, 직업탐구 7만9천277명, 제2외국어/한문 9만5천321명이다.

응시자는 수정용 테이프를 사용해 답을 수정할 수 있으며 교시별 답안지에 일정한 길이의 시나 금언 등을 자필로 기재해야 한다.

교육과정평가원은 이의 신청을 받아 14일 정답을 확정 발표하고 채점 결과는 23일 수험생에게 개별 통보한다. /황태기자 hwangtae@kwangju.co.kr

구글 위성영상 보며 대~한민국

월드컵이 열리는 독일의 경기장을 구글(Google) 위성영상으로 보면서 태극전사를 응원할 수 있게 됐다. (사진)

대덕연구개발특구의 GG21(대표 이상지)은 샵(#)을 이용한 위치 아이디어인 이포지션(ePosition)에 덧글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를 홈페이지(www.egosio.com)를 통해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박지성#'을 치게 되면 구글 위성영상을 통해 토고와의 월드컵 첫 경기가 열리는 프랑크푸르트 경기장을 볼 수 있으며, 박지성 선수 관련 각종 정보와 덧글을 통해 응원할 수 있게 된다.

이포지션은 @대신 #을 이용해 위치를

GG21, 샵(#)이용한 덧글 서비스 제공



나타내는 서비스. 음식점·호텔·시설물 등의 위치를 이포지션 아이디어로 고객이 직접 등록하거나, 등록된 이포지션을 통해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해당 위치를 쉽고 빠르게 찾아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여수산단 또 정전사고

GS칼텍스 등 3곳 가동 중단...막대한 피해

지난달 31일 오후 1시35분께 여수시 월내동 여수국가산업단지에서 정전 사고가 발생. GS칼텍스 여수공장과 삼남석유화학 여수공장, LG화학 SM공장의 가동이 중단(shut-down)됐다. 이날 정전으로 연료가 불완전 연소되면서 이들 공장 내 플레어스택(배출가스 연소탑)에서 검은 연기가 3시간 넘게 뿜어져 나와 이를 본 주민들이 한때 놀라기도 했다.

GS칼텍스 등은 정전 직후 곧바로 예비 전력을 공급 받았지만 공장 시스템이 갑자기 멈춰 서면서 각종 장치와 설비에 무리가 갔을 것으로 보고 시스템 점검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1일 65만 배럴의 정유와 7천t 규모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GS칼텍스의 경우 최소 2 일 안에는 정상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고 있다.

이들 공장은 일단 공장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 설비에 문제가 있어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 중이다. 한편

측은 그러나 발전 설비가 아닌 공장 내 송배전 선로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해 사고 원인을 두고 한전측과 업체간 책임 공방이 일고 있다. 또 이번 사고로 여수산단 내 불안정한 전력 체계로 인한 산업 생산 차질 등이 또다시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GS칼텍스 관계자는 "전 직원에게 비상 연락을 해 현재 공장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을 벌이고 있다"면서 "2초간 정전이 됐지만 석유화학공장 특성상 일단 섰다온다면 그 피해는 크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4월7일에도 여수화력 정비를 맡은 한전기공 직원의 부주의 때문에 정전 사고가 발생해 GS칼텍스 등 5개 업체에서 공정이 중단돼 수백여명의 피해가 났다. 또 5월2일에는 LG석유화학 NCC공장에서 변압기 지락(地絡·전류가 전선으로 흐르지 않고 땅으로 흐르는 현상) 정전사고가 발생, 공장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여수=강성훈기자 kangsw@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Yongbong-dong M-tower' with photos of the building and text describing the property.

Advertisement for 'Simons' furniture featuring various home appliances and furniture items.